

영유아 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

성영화* · 이숙자**

본 연구는 부모들이 경험한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실태 및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교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302명의 부모들이며, 연구결과는 부모들이 응답한 설문지의 내용을 빈도분석하거나 카이검증을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12.6%로, 네 가지의 학대 유형 각각에 대해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과 관련한 기관에서, 아동학대 및 유아교육관련 전문가에 의해 교육을 받았으며, 받은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와 학대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는 영아기부터 학대예방교육을 시작하고, 일상에서 수시로, 주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부모들은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학대와 관련한 자료의 부족으로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의 학대예방교육 실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바로 연계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학대예방교육 매뉴얼의 개발과 방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영유아학대예방(Infant/Preschooler Abuse Prevention)
부모(Parent)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I. 서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유아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

*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 인천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교신저자(jslove6767@hanmail.net)

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들을 규정하는 조약인 UN아동권리협약을 승인하였다(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부모들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할 아동들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다(신지현, 김정화, 2005).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전제는 학대로부터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있다(최은영, 2016).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한다(보건복지부,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학대는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의미한다.

학대는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이사라, 2010; 조명자, 이서영, 2016). 홍성훈과 김희수(2005)의 연구결과 유아 가정에서 경험한 공격적 폭력행동과 신체적 폭력행동은 불안을 증가시키며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유아는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받지 않으며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발달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영유아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1957년 어린이헌장 제9조를 보면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하며 학대 금지규정을 명시하여 노동금지에 초점을 둔 학대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다(오미희, 2016). 아동복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된 2000년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강상, 유수정, 2014). 그 후 2007년에는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영유아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대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의 2016년도 아동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발생 건은 1세 미만 416건, 만 1세 493건, 만 2세 694건, 만 3세 792건, 만 4세 780건, 만 5세 84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 중에서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박은주, 오숙자, 2012). 지금도 영유아학대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학대받는 영유아의 수가 시대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학대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인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발달에 미치는 학대의 심각성과 끊이지 않는 영유아학대를 인식하며 사전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아교육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되어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5. 2). 영유아들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권리 존중교

육 및 학대예방교육을 받으며, 학대 발생 시 대처방법 뿐 아니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주 대상으로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학자들(고이, 2014; 김수진, 2017; 박금식, 하정화, 허두진, 2013; 이호균, 장화정, 유선영, 2001; 임성혜, 이지숙, 1997)은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학대는 그 가정만의 문제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한 오늘날의 부모들은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자신이 받은 학대를 대물림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여 자녀양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유홍옥, 유영의, 이진희, 2013). 부모의 잘못된 아동관 및 양육관은 영유아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다. 백경숙(2011)의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올바른 양육관 및 자녀 교육관 형성을 통한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5,048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8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중요하다(이인선, 2013; 최은영, 2016).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왔다.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 연구(이연승, 2002)가 수행되었다. 이 외에도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이호균, 장화정, 유선영, 2001) 및 선행된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연구(Geeraert, Van den Noortgate, Grietens, & Onghena, 2004; Lundahl, Nimer, & Parsons, 2006)가 수행된 바 있다. 최근 도미향과 장자경(2016)은 아동학대의 이해의 내용, 아동학대 유형 별 인성코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인성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이처럼 고조된 사회적 인식,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점,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가 더해져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따라서 부모들이 경험한 부모교육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대예방 부모교육의 양상을 파악하여 앞으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교육 실태는 학대예방 부모교육 경험 유무, 경험한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만족도 등을 포함하므로,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현 상황을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부모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로 이혜란(2007)은 유아 성학대예방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15.4%라고 밝혔고 이후 고이(2014)는 11.8%의 어머니들이 영아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실태파악의 결과는 학대유형 및 연구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후 2016년 친부와 계모의 학

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평택의 한 아동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여러 기관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김보람, 2017). 오늘날 부모들은 학대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욱 늘어났으며, 부모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부모들이 받은 교육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보며 관련 교육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모교육은 자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부모가 교육자가 되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스스로가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영유아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을 실시하는 부모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영유아학대예방교육이 더욱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대 및 학대예방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춘 부모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혜란(2007)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최승혜(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들도 영유아의 적절한 학대예방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다른 양육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학대예방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부모들은 학대의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학대예방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간의 연계를 통한 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잘못된 양육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들을 협력자로 보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부모들의 자녀 학대예방은 물론 자녀들 스스로가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지와 학대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학대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오남(2004)은 자녀와 대화를 통해 아동성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내용과 방법을 잘 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들의 교육경험과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교육간의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영유아학대 및 예방과 관련한 실태연구는 학대유형별 사례수, 피해아동연령, 학대행위자 등 주로 영유아학대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김홍석(2017)은 제주도에 거주중인 초등학생 아동의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며 아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박금식, 하정화, 그리고 허두진(2013)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부산의 아동학대 경향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과거보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수가 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에서 일부분 다루어졌다. 김홍석(2017)은 연구보고를 통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며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김은영(2017)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유아교육기관 생활 시에 학대 의심 행동을 목격한 여부, 영유아학대 원인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묻고 있어, 부모교육에 대한 실태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올바른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교육이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으로 연계되어 자녀들에게 영유아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고, 삶의 그 어느 시기보다 영유아학대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써 부모들과 관련된 교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부모들의 노력으로 부모교육 실태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예방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녀교육 실태, 그리고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실시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정에서 영유아학대예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1.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I 시에 거주 중인 0~만5세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254명의 어머니와 48명의 아버지로 총

30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부모들의 연령은 30대 81.1%, 40대 9.6%, 20대 9.3%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취업 중인 부모들이 56.0%, 취업을 하지 않은 부모들이 44.0%이었다. 학력에서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들이 80.1%이었으며,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71.9%이었으며,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는 34.4%, 여아인 경우는 40.7%, 남아와 여아 모두 있는 경우는 24.8%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배경		N(%)	배경		N(%)
연령	20대	28(9.3)	취업 유무	취업	169(56.0)
	30대	245(81.1)		미취업	133(44.0)
	40대	29(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13.6)	소득	300만원 이하	54(17.9)
	대학(교) 졸업	242(80.1)		400만원 이하	139(46.0)
	대학원 이상	19(6.3)		400만원 초과	109(36.1)
자녀 발달 시기	영아기	217(71.9)	자녀 성별	남아	104(34.4)
	유아기	25(8.3)		여아	123(40.7)
	영아기와 유아기	58(19.2)		남아와 여아	75(24.8)
	무응답	2(.7)			

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도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과 관련한 실태 및 부모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자녀교육 실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자들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자들이 영유아학대를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고이, 2014; 김오남, 2004; 서예석, 이경실, 2008 등)를 연구목적에 따라 검토한 후 도출하였다. 부모교육 실태에 대한 문항은 김오남(2004)의 학대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담당자(예: 교사 등) 및 내용에 대한 요구도(예: 대처방법 등)와 고이(2014)의 학대 예방교육경험에 대한 문항(예: 교육경험, 학대예방에 도움이 된 것 등)을 참고하였다.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문항은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유무와 관련하여 가정내 성폭력 학대예방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서예석과 이경실(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실시하고 있는 학대예방 교육방법 및 어려움은 김오남(2004)의 연구 중에서 아동성학대예방교육의 지도방법(예:

대화, 그림책 등) 및 어려움(예: 내용과 방법을 모름, 자료부족 등)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교육 실태와 자녀교육 실태에서 학대유형은 보건복지부(2016)의 학대개념을 참고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와 방임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유아교육전공 박사학위자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문항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예: 학대는 신체적 학대가 있단다)를 삭제하며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이후 예비연구에서는 35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부모들은 설문지를 읽고 각 문항에 응답하며 필요시에는 설문지 및 영유아학대예방교육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그 후 본 연구자들이 예비설문지의 결과를 분석하여, 일부 문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관한 설문내용 중에서는 일상에서 수시로 라는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에 대한 응답자가 없음을 고려하여 매우 만족-매우 불만족이라는 4개의 문항에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는 유아교육분야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다시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발은 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발 및 배부로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총 15문항, 하위 33문항으로,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설문지의 응답방식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각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직접 체크하도록 하였다.

표 2.
설문문항

문항	문항구성	하위문항수(문항예시)
부모교육 실태	부모교육 경험 유무	1문항 (부모님께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하여 부모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교육 내용(학대유형별, 학대관련내용별)	10문항 (부모님께서 받은 학대유형별 부모교육 유무는 어떠합니까?)
	부모교육 방법(장소, 교육자)	2문항 (부모님께서 주로 어디서 아동학대예방관련 부모교육을 받았나요?)
	부모교육 만족도 및 바라는 점 (만족도, 바라는 점)	2문항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교육 실태	자녀교육 실시	3문항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녀교육 내용(학대유형별, 학대관련내용별)	10문항 (가정에서 자녀에게 다음의 아동학대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녀교육 방법 및 어려움(교육을 시작하는 연령, 시기, 사람, 방법, 어려운 점)	5문항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몇 세 때부터 실시하였습니까?)

본연구는 I시에 위치해 있는 2곳의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 중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부모들은 최소 1명 이상의 0세~만5세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이들로써, 설문지를 받은 후 곧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총 32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302명의 부모들이 설문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목적 및 문제에 맞게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실태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영유아학대 관련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실태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실태는 교육경험, 교육내용, 교육방법, 만족도 및 바라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들이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서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12.6%이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87.4%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부모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경험 (N=302)

문항	N(%)
교육받음	38(12.6)
교육받지 않음	264(87.4)

38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받은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대유형별로 부

모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으로는 신체적 학대 92.1%, 정서적 학대 81.6%, 성적 학대 86.8%, 방임 73.7%로 모든 학대유형에서 70%가 넘는 부모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관련한 내용별로 살펴보면, 학대 개념과 유형 81.6%, 학대하는 행동 특성 73.7%, 학대하는 사람 73.7%, 학대 받은 아동의 증상 84.2%,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81.6%, 학대 시 대처방법 81.6%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은 학대의 네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학대에 대한 기초 이론과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내용 (N=38)

		문항	N(%)			문항	N(%)
학대 유형별	신체적	교육받음	35(92.1)	정서적	교육받음	31(81.6)	
		교육받지 않음	3(7.9)		교육받지 않음	7(18.4)	
	성적	교육받음	33(86.8)	방임	교육받음	28(73.7)	
		교육받지 않음	5(13.2)		교육받지 않음	10(26.3)	
	학대 관련 내용별	개념과 유형	교육받음	31(81.6)	행동 특성	교육받음	28(73.7)
			교육받지 않음	7(18.4)		교육받지 않음	10(26.3)
학대 사람		교육받음	28(73.7)	아동 증상	교육받음	32(84.2)	
		교육받지 않음	10(26.3)		교육받지 않음	6(15.8)	
예방 방법	교육받음	31(81.6)	대처 방법	교육받음	31(81.6)		
	교육받지 않음	7(18.4)		교육받지 않음	7(18.4)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은 장소로는 36.8%의 부모들이 유아교육관련 기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6.3%의 부모들은 지역사회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육자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유아교육관련 전문가에서 동일하게 42.1%라고 응답하였다.

표 5.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방법 (N=38)

		문항	N(%)			문항	N(%)
교육받은 장소		지역사회	10(26.3)	교육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16(42.1)
		유아교육관련 기관	14(36.8)			유아교육관련 전문가	16(42.1)
		유아교육기관	7(18.4)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4(10.5)

TV 프로그램	7(18.4)	경찰관	2(5.3)
---------	---------	-----	--------

표 6을 보면 부모들은 받은 학대예방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8.9%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들과 그렇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위해 바라는 점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발 및 배부에 대한 응답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이 28.5%로 나타났다.

표 6.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만족도 및 바라는 점

문항	N(%)	문항	N(%)
교육 만족	30(78.9)	학대 관련 부모교육	86(28.5)
교육 시 만족도 (N=38)		부모 쉽게 활용 아동학대 매뉴얼 개발 및 배부	182(60.3)
불만족	8(21.1)	전문가의 가정방문 직접 교육	34(11.3)
		교육 시 바라는 점 (N=302)	

2.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는 자녀교육 실시, 자녀교육 내용, 자녀교육방법 및 어려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모들의 응답은 74.8%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25.2%의 부모들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제 자녀에게 학대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60.5%, 자녀의 학대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 23.7%, 사회적 관심의 증가 15.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가정에서 영유아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학대예방교육을 대신 실시해 준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와 같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3%, 부모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8%,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이었다.

표 7.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

문항		N(%)	문항		N(%)
실시 (N=302)	실시함	76(25.2)	실시 이유 (N=76)	사회적 관심의 증가	12(15.8)
	실시하지 않음	226(74.8)		불안감	46(60.5)
			실시하지 않는 이유 (N=226)	자녀의 학대 예방 및 대처 능력 함양	18(23.7)
				유아교육기관에서 대신 실시	97(42.9)
				부모 자신의 지식 부족	38(16.8)
				필요성 인식하지 못함	73(32.3)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18(8.0)

가정에서 자녀에게 실시하고 있는 학대예방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대 유형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각각 89.5%, 65.8%, 71.1%, 34.2%로 나타나 방임에 대한 교육이 가장 낮은 실시 응답을 보였다. 학대와 관련한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학대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부모들의 응답은 85.5%,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는 응답은 73.3%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 행동의 특성이나 학대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부모들의 응답은 각각 42.1%, 44.7%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학대의 개념과 같이 학대에 대한 기초지식보다는 학대 발생 시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내용 (N=76)

문항		N(%)	문항		N(%)	
학대 유형별	신체적	실시함	68(89.5)	정서적	실시함	50(65.8)
		실시하지 않음	8(10.5)		실시하지 않음	26(34.2)
	성적	실시함	54(71.1)	방임	실시함	26(34.2)
		실시하지 않음	22(28.9)		실시하지 않음	50(65.8)
학대 관련 내용별	개념과 유형	실시함	34(44.7)	행동 특성	실시함	32(42.1)
		실시하지 않음	42(55.3)		실시하지 않음	44(57.9)
	학대 사람	실시함	56(73.7)	아동 증상	실시함	44(57.9)
		실시하지 않음	20(26.3)		실시하지 않음	32(42.1)

예방 방법	실시함	47(61.8)	대처 방법	실시함	65(85.5)
	실시하지 않음	29(38.2)		실시하지 않음	11(14.5)

가정에서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 자녀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교육을 실시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시작하는 자녀의 연령은 1~2세 32.9%, 3세 22.4%, 4세 21.1%, 5세 14.5%, 6세 이상 9.2%로, 유아기보다는 영아기부터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하는 시기는 일상에서 수시로 한다는 부모들의 응답이 56.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주로 교육하는 사람으로는 85.5%의 부모들이 어머니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은 대화와 동영상 및 TV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각각 48.7%, 30.3%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자료의 부족 44.7%, 내용과 방법을 잘 모름 30.3%, 역효과에 대한 우려 22.4%, 쑥스럽고 거부함 2.6% 순으로 부모들은 응답하였다.

표 9.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방법 및 어려운 점 (N=76)

문항		N(%)	문항		N(%)
교육을 시작하는 연령	1~2세	25(32.9)	교육하는 시기	물어볼 때	4(5.3)
	3세	17(22.4)		외출할 때	12(15.8)
	4세	16(21.1)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17(22.4)
	5세	11(14.5)		일상에서 수시로	43(56.6)
	6세 이상	7(9.2)			
교육하는 사람	어머니	65(85.5)	교육하는 방법	대화	37(48.7)
	아버지	7(9.2)		그림책 및 사진	13(17.1)
	기타(조부모 등)	4(5.3)		동영상 및 TV 프로그램	23(30.3)
교육 시 어려운 점	내용과 방법을 잘 모름	23(30.3)	인형	3(3.9)	
	자료 부족	34(44.7)	쑥스럽고 거부함	2(2.6)	
			역효과에 대한 우려	17(22.4)	

3.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 차이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5.3%이었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4.7%이었다.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들의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각 20.8%, 79.2%이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 = 20.909, p < .001$).

표 10.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 차이 (N=302)

문항	부모교육 경험 유	부모교육 경험 무	χ^2 (df)
가정에서 자녀교육 실시함	21(55.3)	55(20.8)	20.909*** (1)
가정에서 자녀교육 실시하지 않음	17(44.7)	209(79.2)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1.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실태

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를 학대 하지 않으며, 자녀의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관련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실태는 경험 유무, 부모교육내용과 방법, 부모교육 만족도 및 바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경험해 보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들보다 경험하지 않은 부모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고이, 2014; 김수진, 2017; 정혜숙, 이은주, 2016)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정혜숙과 이은주(2016)는 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예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여, 실제 예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

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가치관 및 양육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는 이미화(2015)의 관점과는 달리 실제 부모교육을 받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다더라도 부모들의 자발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홍석(2017)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좋은 교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관심부재를 제시하고 있어, 부모의 참여 의사도 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많았던 것은 신고의무자인 영유아교사들에 대한 학대 관련 교육이 강화된 것과 달리 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부모교육의 참여는 스스로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홍석(2017) 및 김은영(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학대예방을 위해서 양육 수당, 보육료 등을 신청할 때, 꼭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베이비뉴스, 2018, 3, 13). 따라서 앞으로는 영유아기 자녀는 둔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대예방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그 초점이 부모 개인 혹은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에 맞추어져 있으며, 아동과 부모간의 관계를 향상하고 적절한 양육기술을 부모가 습득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인선, 2013).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학대에 관한 지식 전반을 다루어, 부모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녀를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지만, 때로는 포괄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여 부모들에게 안내됨으로서 학대예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여 부모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더욱 확대, 보편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박현미, 2006), 추후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부모들의 요구를 우선 파악하여, 이에 따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의 월령에 따라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정미라, 최혜정, 그리고 강수경(2015)의 관점을 고려할 때,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부모들에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교육의 중심 내용은 학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들이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바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대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과 같이 학대와 관련한 모든 유형과 학대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서 70%가 넘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학대에 비해 방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만 1세 미만의 경우 256건, 만 1세~만 3세의 경우 789건, 만 4세~만 6세의 경우 868건으로 방임으로 인한 학대가 나타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실제 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방임도 자녀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임의 개념 및 방임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확대될 필요성과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들은 영유아학대와 관련하여 학대개념과 유형, 행동특성, 학대하는 사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정혜숙과 이은주(2016)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아동학대 개념과 내용, 신고절차, 아동학대 발견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영유아학대예방 교육은 학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 부모교육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방법에서는 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유아교육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유아교육관련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기관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최승혜, 2007) 및 영유아교사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을 고려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부모들이 영유아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앞으로 부모들은 유아교육관련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부모교육을 운영하며 부모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면, 더 많은 부모들이 학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영유아학대예방교육은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받은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서 선행된 김윤희(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람(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대 예방교육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학대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여 부모의 요구에 부합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효과성을 놓고 볼 때, 이호균, 장화정 그리고 유선영(2001)는 부모교육이 아동에 대한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보았고 Lundahl, Nimer 그리고 Parsons(2006)는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대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학대와 관련된 부모교육이 학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스스로 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는 부모들의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위해 바라는 점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부해 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용 성학대예방 프로그램의 kit를 개발하여 매뉴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혜란(2007)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Barth(2009)에 따

르면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들은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방편적인 형태가 아닌 더욱 진보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지 않는 부모들이 받은 부모들보다 많다는 본 연구결과와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요인이나 시간이 참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김수진(201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매뉴얼을 통한 학대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방법보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매뉴얼 개발을 통한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하여, 부모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대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은 부모들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잘못된 양육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들이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쉽게 제시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교육을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 결과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보다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 사건이 불거지고 이슈화되면서 언제 자녀가 학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그 이유에 대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대신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학대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 서예석과 이경실(2008)의 연구와 유사한 반면 학대예방교육을 부모들이 해 주길 바란다는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최승혜(2007)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증가하고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학대예방교육을 책임지고 교육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교육이 실시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만큼, 학대예방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대 유형별 교육 내용으로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방임 순으로 나타나, 방임의 경우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많았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조명자와 이서영(201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사라(2010)는 일반적으로 방임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방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방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대의 개념 및 유형이나 학대하는 행동의 특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녀들에게 학대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되길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영유아의 관점에서 학대란 무엇이며, 어떤 행동들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방법 및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1~3세의 유아기부터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서예석과 이경실(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가 관심 있어서 물을 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부모들의 인식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수시로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학대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가정에서의 학대예방교육은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학대예방교육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김오남(2004), 이해란(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는 점과 대화는 별 다른 준비 없이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여 일상에서 수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로 어머니에 의해 대화의 방법으로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자료가 부족하고, 내용이나 방법을 잘 모르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고 부모들은 응답하였다. 즉, 영유아학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실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선 연구결과에서처럼 부모들이 자녀에게 학대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주로 실시되거나 대화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이러한 부모들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스스로 자녀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 학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교육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영유아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 차이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관련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오남(2004)은 아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성지식을 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 성학대예방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김수진(2017)의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들이 부모교육에 참석한다면 듣고 싶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환경교육에 대해 지도받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환경교육을 지도한다는 응답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의 이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김서령(2003)의 관점처럼,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가정에서도 자녀의 영유아학대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대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을 안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의의,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I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이 편중되어 있으며, 302명의 부모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38명, 자녀에게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76명으로 부모들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영유아자녀교육 내용 및 방법, 그리고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시 유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과 같은 변인에 따라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실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서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실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라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실태와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녀교육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짚어보며 부모교육의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며 동시에 받은 부모교육이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교육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자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그 실태에 대해 파악하며 가정에서의 영유아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학력, 소득 등과 같은 배경에 따른 부모교육 실태 파악과 자녀의 연령 및 성별을 포함하여 자녀변인에 따른 자녀교육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윤정과 성소영(2013)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성역할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힌 바 있어, 영유아의 성별을 포함한 배경 변인에 따라서 성학대예방교육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부모들이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 유수정(2014).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 18(4), 145-165.
- 고이(2014). 영아 어머니와 교사의 영아 학대에 대한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2017).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령(2003). 환경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경험이 자녀 지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7).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3(3), 75-94.
- 김오남(2004). 부모의 아동성학대 예방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73-84.
- 김윤희(2017).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17). 우리나라 영유아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 페이지, 37-35.
- 김홍석(2017).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1-186.
- 도미향, 장자경(201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인성 코칭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 2016 공동춘계 학술대회, 이 시대 가정, 과연 안전한가?: 가정의 위기, 그 진단과 개선방향, (pp. 173-183). 서울: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 박금식, 하정화, 허두진(2013).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1-180.
- 박은주, 오숙재(2012). 아동상담의 실태와 부모 인식에 따른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종일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2(1), 79-94.
- 박현미(2006). 웹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6(2), 157-178.
- 백경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

- 지학, 16(2), 181-198.
- 베이비뉴스(2018. 3. 13). 양육수당 신청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받는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12>에서 2018년 3월 18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6).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50&efYd=20160923#0000>에서 2017년 3월 28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7. 5.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4.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1-1352000-000025-10.
- 서예석, 이경실(2008).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육아지원연구, 3(2), 145-175.
- 신지현, 김경화(2005). 어린이집의 학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5(1), 123-140.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7). 201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오미희(2016).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연구동향: 법 제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9, 295-314.
- 유홍옥, 유영의, 이진희(2013). 예비·현직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심각성 및 신고의 효과성,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13(3), 241-257.
-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 이미화(2015). 부모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육아정책포럼, 45, 19-28.
- 이사리(2010).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과 사회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 27-41.
- 이연승(2002). 유아기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일 연구. 인문학논총, 5, 349-369.
- 이운정, 성소영(201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성역할 인식과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리더십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3(1), 113-132.
- 이인선(20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젠더리뷰, 31, 56-60.
- 이혜란(2007). 유아 성 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2(2), 59-85.
- 이호균, 장화정, 유선영(2001).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아동부모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아동권리연구, 5(1), 23-33.
- 임성혜, 이지숙(1997). 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진주전문대학논문집, 20, 333-347.
-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4), 179-199.

- 정해숙, 이은주(2016). 영유아부모의 아동학대와 대처방안 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보호연구*, 1(1), 69-90.
- 조명자, 이서영(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유아 권리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2), 277-295.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가정양육지원: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1/d1_40000/d1_600061/d1_600205.jsp에서 2017년 8월 30일 인출
- 최승혜(2007).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2016).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 교직원, 부모의 경험과 인식.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99-216.
- 홍성훈, 김희수(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폭력 수준과 불안 및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5(1), 75-87.
- Barth, R. P. (2009).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with parent training: Evidence and opportunities. *The Future of Children*, 19(2), 95-118.
- Geeraert, L., Van den Noortgate, W., Grietens, H., & Onghena, P. (2004). The effects of early prevention program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t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A meta-analysis. *Child Maltreatment*, 9(3), 277-291.
- Lundahl, B. W., Nimer, J., & Parsons, B. (2006). Preventing child abuse: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program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3), 251-262.

Abstract

State of Parent Education and of Child Education at Home Related to Infant/Preschooler Abuse Prevention

Sung, Young Hwa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Lee, Suk Ja

(Bupyeo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Dir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parent education experienced by parents and the state of child education at home relation to infant/preschooler abuse preven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2 selected parents who resided in I city and whose children were in infancy or early childhood. A survey was conducted, and frequency analysis or chi-square test was carried out after their answer sheets were gather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s for the state of parent education, the parents who received education related to infant/ preschooler abuse prevention accounted for 12.6 percent, and the parents who were taught about all the four types of abuse outnumbered the others who weren't. The parents received that education at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experts in child abus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y replied they were satisfied with that education. As for the state of child education, the parents who replied they provided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at home accounted for 25.2 percent, and they answered they taught about physical abuse and how to cope with abuse. They responded they started to conduct this education in their homes when their children were in infancy, and they did it frequently in daily life mainly through conversations. They told it's difficult for them to offer this education at home due to a shortage of abuse-related materials. And whether they offered tha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or not at h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they received parent education or not.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manuals for abuse prevention education that can easily be used at home without any modifications was suggested, and education on neglect and the revitalization of publicity are required as well.